

군산먹거리통합센터, 업무활동 본격

푸드플랜 활성화 역할 수행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팀장급 이상 실장, 부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기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전월해 본 센터를 중심으로 학교·복지·공공·기업급식, 새만금 지구와 신생기업에 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가공품 공급 등 지역순환경제 창출을 위해 설립됐다. 지난 7월 설립등기를 마친 센터는 직원제

용 및 행정절차 이행 등 푸드플랜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이사장과 임원진을 비롯해 실장이사, 경영기획실장, 공공급식사업부를 중심으로 6개팀으로 구성, 정규직 직원 30명, 무기계약직 9명, 기간제 근로자 11명이 지난 9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센터는 군산시 푸드플랜 실행 중간지원 조직으로 역할 수행을 위해 단계별 추진과제를 수립해 체계적인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김태영기자·kukun79@/면접=최초기자·chh@

군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본격 가동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나섰다.

먹거리지원센터는 최근 팀장급 이상 실장 및 부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는 등 인원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전월한 이곳 센터는 학교·복지·공공·기업급식 나아가 새만금 지구의 신생기업에 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가공품 공급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지역순환경제 창출을 위해 설립됐다.

먹거리지원센터는 군산시 푸드플랜 실행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과제를 수립, 체계적인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성 강화·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구축,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기반 강화, 홍보 마케팅 및 소동역량 강화 세 가지 성과지표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상원 먹거리지원센터 상임이사는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기획생산체계 확립, 관계시장 창출, 생산자-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에 집중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이현규 기자